

動 向 分 析

雇 傭

1. 최근의 고용동향

◆ 고용사정의 급속한 회복 : 임시 및 일용직 고용증가

1999년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V자형 경기회복을 보임에 따라 고용사정은 개선되었지만 내용면에서 고용 및 실업의 질적 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 4/4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2% 증가를 보였으며, 1/4분기 -3.3%, 2/4분기 0.6%, 3/4분기 3.2% 등 1999년 2/4분기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전체로 취업자는 1.4% 증가하였다. 월별추세를 보면, 10월 4.5%, 11월 5.9%, 12월 5.2% 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 1월 들어서는 6.1%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94년 1/4분기(4.4% 증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경기의 정점이었던 1995년 3/4분기의 두배 이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 대부분이 임시 및 일용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99년 4/4분기 임금근로자의 증가분 859천명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927천명이었으며 상용근로자는 69천명 감소하였다. 따라서 1999년 4/4분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전년동기의 51.0%에서 47.1%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9년 내내 지속되어 1999년 전체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48.3%에 그쳐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2000년 1월 들어서는 상용근로자가 0.4%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증가분 중 상용근로자 증가분의 비중은 2.3%에 불과하였고, 97.7%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경기회복의 가속화로 실업자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4/4분기 실업률은 4.6%였으며, 1999년 전체로는 6.3%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및 전년에 비해 각

1) 현재의 이러한 추세는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향후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의 개선이 요망된다.

각 2.8%포인트, 0.5%포인트 감소하였다. 월별로는 1999년 10월 4.6%, 11월 4.4%로 꾸준한 감소를 보였으나 12월(4.8%) 및 2000년 1월(5.3%)에는 재학생의 구직활동 증가, 건설업 및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률은 다소 높아졌다.

실업구조를 보면,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실업자 비중 및 이른바 ‘실망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999년 1/4분기(14.0%)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4/4분기 9.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4.5%포인트 낮아졌으며, 1999년 전체로는 10.9%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1.5%포인트 낮아졌다.

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99년 2/4분기 이후 다소 줄어들어 1999년 4/4분기 3.0%, 1999년 전체로는 3.8%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2000년 1월에 들어서도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3%로 전년동월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2000년 1월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구직단념자는 240천명으로 전월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의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명, %)

	1998. 4/4	1998	1999. 4/4	1999	2000. 1.
15세 이상 인구	35,537	35,362	35,910	35,765	35,959
경제활동인구	21,511	21,456	21,972	21,634	21,257
취업자	19,924	19,994	20,962	20,281	20,131
실업자	1,588	1,461	1,011	1,353	1,127
실업률	7.4	6.8	4.6	6.3	5.3
비경제활동인구	14,026	13,906	13,938	14,131	14,70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

2. 경제활동인구 동향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 회복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 4/4분기 21,97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다. 성별로 남성은 13,01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3천명(0.9%), 여성은 8,955천명으로 347천명(4.0%) 증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

입이 활발하였다. 1999년 전체로도 경제활동인구는 21,63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였으며,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2,889천명이었으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전년에 비해 2.1% 증가한 8,745천명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였다.

연령별로 경제활동인구 동향을 보면, 1999년 4/4분기에 20, 30대 연령계층에서 각각 1.6%, 1.7% 감소하였다. 1999년 전체로도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현저하였다(-3.7%, -1.4%). 20, 30대 연령계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40대와 60대 연령계층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 4/4분기에 40대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각각 6.7%, 8.8%였으며, 1999년 전체로도 5.3%, 6.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4/4분기 61.2%로 전년동기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하였으나, 1999년 전체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표 2>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동향

(단위: 천명, %)

	남 자				여 자			
	1998. 4/4	1998	1999. 4/4	1999	1998. 4/4	1998	1999. 4/4	1999
15~19세	188 (9.3)	182 (9.2)	211 (10.9)	209 (10.6)	210 (10.9)	229 (12.1)	232 (12.4)	223 (11.8)
20~24세	639 (54.2)	657 (54.3)	594 (52.1)	619 (53.2)	1,050 (59.8)	1,086 (61.0)	1,056 (60.0)	1,070 (60.8)
25~29세	1,762 (85.7)	1,803 (86.9)	1,713 (84.4)	1,714 (84.2)	1,074 (52.3)	1,078 (51.8)	1,089 (55.0)	1,047 (52.3)
30~39세	4,106 (96.4)	4,108 (96.3)	3,996 (96.2)	4,026 (95.8)	2,178 (53.6)	2,169 (53.1)	2,182 (54.5)	2,161 (53.6)
40~49세	3,142 (94.5)	3,105 (94.7)	3,341 (94.4)	3,237 (93.8)	2,035 (63.1)	1,976 (62.7)	2,184 (63.6)	2,115 (63.0)
50~59세	1,941 (87.3)	1,929 (87.1)	1,986 (86.4)	1,940 (85.8)	1,197 (53.1)	1,187 (53.1)	1,237 (54.3)	1,209 (53.4)
60세이상	1,125 (51.5)	1,109 (52.2)	1,176 (51.3)	1,144 (50.8)	865 (28.5)	838 (28.1)	975 (30.7)	920 (29.4)
전 체	12,903 (74.9)	12,893 (75.2)	13,017 (74.8)	12,889 (74.4)	8,608 (47.0)	8,562 (47.0)	8,955 (48.4)	8,745 (47.4)

주 : ()안은 참가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로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9년 4/4분기 74.8%로 0.1%포인트 낮아진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1.4%포인트 높아졌으며, 1999년 전체로도 남성은 74.4%로 0.8%포인트 낮아진 반면, 여성은 47.4%로 0.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남성의 경우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표 2 참조). 다만, 남성 15~19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다르게 재학생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 15~19세 연령의 경제활동인구 중 재학생의 비중은 1999년 4/4분기에 35.8%로 전년동기에 비해 38.3% 늘어났다.

3. 취업자 동향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12.8% 증가

1999년 4/4분기 취업자는 20,96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하였다. 이는 1987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취업자의 이러한 증가는 기술적 반등이외에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체로도 취업자는 20,281천명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취업자를 보면, 1999년 4/4분기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40대 이후 연령계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1999년 연간으로 보면 20, 30대 연령계층은 각각 2.4%,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1999년 4/4분기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9.6%),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2%), 건설업(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7%)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은 0.8% 감소한 반면,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12.8% 증가하여 이 산업전체로 7.2%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는 최근의 소규모사업, 벤처 등 창업열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연간으로는 건설업(-6.5%), 농림어업(-5.3%)을 제외하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업별 취업자의 증가가 성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은 남성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성별·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천명, %)

	남 자						여 자					
	98. 4/4	99. 4/4	증가율	1998	1999	증가율	98. 4/4	99. 4/4	증가율	1998	1999	증가율
농 업	1,245	1,244	(-0.1)	1,299	1,249	(-3.9)	1,084	1,127	(3.9)	1,181	1,101	(-6.8)
광 업	22	18	(-14.6)	21	19	(-9.9)	0	1	(-)	0	1	(-)
제 조 업	2,524	2,684	(6.4)	2,553	2,563	(0.4)	1,340	1,549	(15.6)	1,345	1,443	(7.2)
전기·가스·수 도 업	55	54	(-2.0)	52	52	(-1.1)	9	11	(28.1)	9	9	(5.4)
건 설 업	1,366	1,458	(6.8)	1,435	1,354	(-5.6)	119	131	(10.2)	143	122	(-14.9)
도 소 매 및 음식·숙박업	2,703	2,842	(5.1)	2,714	2,758	(1.6)	2,891	3,071	(6.2)	2,857	2,967	(3.8)
운수·창고및통신업	1,065	1,112	(4.4)	1,045	1,080	(3.4)	125	131	(5.5)	124	122	(-1.7)
금융·보험및부동산·임대서비스업	1,144	1,248	(9.1)	1,129	1,206	(6.8)	722	751	(4.0)	727	719	(-1.1)
사 회, 공 공, 개인서비스업	1,726	1,678	(-2.8)	1,662	1,697	(2.1)	1,787	1,851	(3.6)	1,697	1,819	(7.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시 및 일용직 비중의 지속적 증가

종사상지위별로 취업자를 보면, 1999년 4/4분기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7,930천명으로 2.3%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3,031천명으로 7.1% 증가하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 감소한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10.0%, 26.8%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47.1%로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전체로는 비임금근로자는 7,759천명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임금근로자는 12,522천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3% 감소하여 임시·일용근로자가 각각 4.6%, 31.9%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로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48.3%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1999년 4/4분기에 상용직 근로자가 0.2%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성 취업자 증가분 548천명 중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7.8%였고, 임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대부분이 임시 및 일용직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에서 임시 및 일용직

이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남성의 16.2%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여성 취업의 질적 수준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창업지원 등으로 고용주 및 자영업주 형태의 취업자 증가율은 현저히 높아졌다. 1999년 전체로도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남 자						여 자					
	98. 4/4	99. 4/4	증가율	1998	1999	증가율	98. 4/4	99. 4/4	증가율	1998	1999	증가율
상 용	4,670	4,599	(-1.5)	4,856	4,542	(-6.5)	1,537	1,539	(0.2)	1,601	1,508	(-5.8)
입 시	1,785	2,041	(14.3)	1,755	1,925	(9.7)	2,220	2,366	(6.6)	2,244	2,258	(0.6)
일 용	990	1,198	(21.1)	887	1,104	(24.4)	971	1,288	(32.7)	848	1,186	(39.8)
고 용 주	1,157	1,170	(1.1)	1,180	1,131	(-4.1)	252	263	(4.6)	246	253	(2.7)
자 영 자	3,042	3,097	(1.8)	3,023	3,046	(0.7)	1,385	1,457	(5.1)	1,327	1,410	(6.3)
무급가족종사자	204	233	(14.2)	209	230	(10.0)	1,711	1,710	(-0.1)	1,819	1,688	(-7.2)
전 체	11,848	12,338	(4.1)	11,910	11,978	(0.6)	8,076	8,624	(6.8)	8,084	8,303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실업자 동향

◆ 20, 30대 실업자 감소 현저

1999년 4/4분기 실업자는 1,011천명, 실업률은 4.6%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679천명, 여성 331천명으로 실업률은 각각 5.2%, 3.7%였다. 성별 실업률 격차는 1.5%포인트로 2/4분기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체로 실업자수는 1,353천명으로 전년대비 7.4%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6.3%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실업률 동향을 보면, 1999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0대와 30대의 실업자 감소(각각 34.1%, 41.9% 감소)가 두드러졌다. 1999년 연간으로도 이 연령계층의 감소가 현저하였다(각각 14.1%, 8.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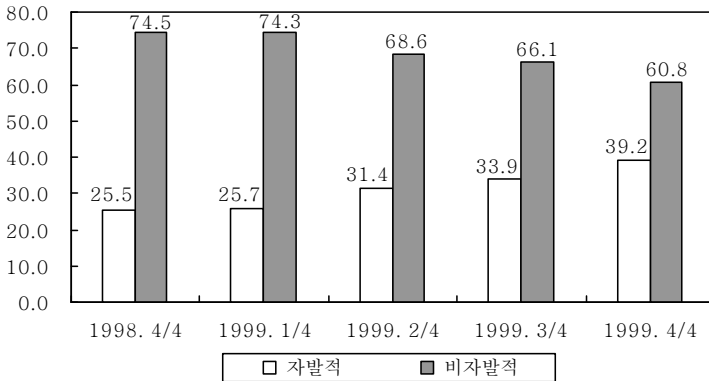
◆ 경기호주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중 감소

1999년 4/4분기 전직유무별로 실업자를 구분하여 보면, 신규실업자는 63천명으로 전

년동기대비 43.8% 감소하였고, 전직실업자도 94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8% 감소하였다.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실업자의 이직원인을 살펴보면, 개인·가족적 이유, 건강상 이유, 정년퇴직·연로, 작업여건 불만족 등 자발적인 실업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9년 4/4분기 자발적인 실업자의 비중은 39.2%로 전년동기에 비해 13.7%포인트 늘었으며,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은 59.3%로 전년동기의 73.2%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1999년 연간으로도 신규실업자 92천명, 전직실업자 1,261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1.4%, 6.2% 감소하였으며,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실업자의 이직원인을 살펴보면, 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은 31.6%로 전년에 비해 9.3%포인트 늘어나 비자발적 실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경기상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부도나 각 기업에서 해고, 조기퇴직 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이직원인별 실업자 분포



구직기간별로 실업자 분포를 보면, 1999년 4/4분기에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16.6%로 전 분기 및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3.0%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1999년 연간으로는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18.6%로 전년의 14.6%에 비해 높아졌으며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도 전년의 1.4%에서 1999년의 3.8%로 두배 이상 높아졌다.

(그림 2) 구직기간 6개월 이상 및 12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추이

